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상황

미국의 사망원인 중
4위가 약물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별생각 없이
먹었던 약이 우리 아이,
가족에게 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화장실
유머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음주 중 두통약 : 간이 위험



음주 도중이나
직후에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진통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술 마신 다음날은
두통약을 복용하셔도
상관이 없으나,
매일 세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
복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 :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게 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 (下血)을 일으킬
수 도 있다고 해요~

정 불안하시면
아침, 저녁에 한 알씩
나눠서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서 피임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혈전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3.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수가 아니라
의약품이에요.
15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염려도 있고,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4. 로열젤리 드링크 :
알레르기 악화



로열젤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천식환자가 있으면
로열젤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5.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 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
들어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6.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합니다!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특히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고 해요.

또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급성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고 해요.

7.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한다!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 이상
비타민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8.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이
있는데요!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대용!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 제제(노바스크 등)와

자몽 주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자몽 주스는 약
복용 2시간 지난 뒤에
마셔야 합니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 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9. 천식 환자가 초콜릿 :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해요.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릿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도 바로
증상인데요.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10. 소화제·감기약·
변비약과 우유 :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답니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
하기 때문이래요.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